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저 빛을 따라가 혜성이 되어 저 하늘을 날아봐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배점은 2점 또는 3점입니다.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수능맛집국어연구소

제 1 교시

국어 영역

수능맞집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행위이지만, 어떤 매체를 통해 읽느냐에 따라 독자의 역할과 의미 구성 방식은 달라진다. 전통적인 인쇄 매체는 저자가 구성한 순서와 논리를 독자가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형적 읽기’가 중심이 된다. 반면 하이퍼링크로 텍스트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디지털 환경에서는 독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보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비선형적 읽기’가 주로 이루어진다.

선형적 읽기에서 독자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며 제시된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점진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깊이 있게 따라가며 텍스트 전체의 유기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돋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논리의 흐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므로, 복잡한 개념이나 추상적인 이론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유리하다.

비선형적 읽기에서 독자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인 탐색자의 역할을 맡는다. 무수한 정보의 바다에서 자신의 독서 목적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연이어 탐색하며 지식을 스스로 재조합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읽기 방식은 독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정보의 과편적인 이해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인지적 과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

⑦ 성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읽기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빠르게 훑으면 핵심 개념을 파악할 때에는 비선형적 읽기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 중 중요한 텍스트의 핵심 논지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형적 읽기로 전환하여 텍스트에 몰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매체의 특성에 끌려가기보다 읽기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전략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 매체에 따라 독자의 역할과 의미 구성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 ② 비선형적 읽기는 독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할 수 있다.
- ③ 선형적 읽기는 독자가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비선형적 읽기는 선형적 읽기에 비해 독자의 인지적 과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다.
- ⑤ 인쇄 매체에서는 주로 선형적 읽기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주로 비선형적 읽기가 이루어진다.

2. ⑦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어려운 주제의 책을 여러 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며 지식을 쌓는다.
- ② 시사 쟁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얻기 위해, 여러 언론사의 관련 기사들을 비교하며 읽는다.
- ③ 영화 감상평을 쓰기 위해, 인터넷의 여러 리뷰를 넘나들며 인상적인 표현들을 수집하여 활용한다.
- ④ 보고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웹 서핑으로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자료는 출력하여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 ⑤ 저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책에 나온 모든 인용문의 원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방식으로 글을 읽는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독서 활동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독서 목적]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인공지능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

[독서 활동]

학생은 검색 엔진에 핵심어를 입력하여 여러 뉴스 기사를 훑어보았다. 그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선택하여 읽다가, 본문에 언급된 ‘생성형 AI’라는 용어에 설정된 하이퍼링크를 눌러 기술 전문 블로그로 이동했다. 블로그의 내용을 통해 기본 개념을 파악한 후, 다시 관련 기업의 발표 자료를 찾아 읽었다.

- ① 독서 목적을 고려할 때, 학생이 여러 하이퍼링크를 넘나들며 정보를 탐색한 것은 비선형적 읽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겠군.
- ② 학생이 검색 결과 중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글을 선택해 읽은 것은 비선형적 읽기에서 독자의 능동적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이겠군.
- ③ 학생이 하나의 글을 순차적으로 끝까지 읽지 않고 다른 글로 이동한 것은, 선형적 읽기의 장점을 통해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이겠군.
- ④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정보의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면, 윗글에서 언급한 인지적 과부하를 겪을 수 있겠군.
- ⑤ 보고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학생은 정보 수집 후 중요한 개별 자료에 대해서는 선형적 읽기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시민은 왜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 물음은 서구 정치철학의 근본 문제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어 왔다. 특정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복종을 강제하는 권리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구속하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속한 정치 공동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즉 폴리스를 자연의 섭리에 따른 공동체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족이나 부족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지닌 정치적 동물이기에, 개인의 생존을 넘어 좋은 삶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국가를 형성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에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공동체의 번영과 시민의 덕성 함양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달려있다. 즉, 권력은 특정 계층의 지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이해된다.

근대에 이르러 국가는 더 이상 자연적 산물이 아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 구성물로 간주되었다. 흡스, 로크, 루소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약론자들은 법과 제도가 없는 자연 상태의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거나 위임하는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 권력을 창출했다고 보았다. 이는 권리의 원천이 신의 계시나 자연의 섭리가 아닌, 이성적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치철학의 논의를 새로이 전환하고 확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 정치철학의 등장으로 인해, 권력은 더이상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회계약론의 사상적 흐름은 현대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리로 집약되었다.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리,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현대 국가에서 권리의 정당성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표자들은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그러나 이렇게 위임된 권리조차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입헌주의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이는 권리가 법에 의해 창출되고 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이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논의는 주권자가 제정한 법이 어떻게 국가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베는 주권 권리의 본질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정상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효력이 멈추는 지점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는 법질서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권리의 숨은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아감베에 따르면, 주권자란 법을 만들고 적용하는 자인 동시에, 바로 그 법을 바탕으로 법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다. 주권자가 국가 비상사태 등을 이유로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외상태를 선포하면, 그 안에 놓인 개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정치적 권리가 박탈당한다. 이때 개인에게 남는 것은 법적 인간으로서의 정치적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만 있다는 사실뿐인 생물학적 생명, 즉 ‘벌거벗은 생명’이다. 이들은 법의 보호 바깥으로 추방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법의 제약도 받지 않는 주권 권리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에 완벽히 ①놓이게 된다.

아감베는 이러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고대 로마법에 등장하는 ‘호모 사케르’라는 인물을 원형으로 제시한다. 호모 사케르는 법적으로 ②‘죽여도 좋지만, 희생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독특한 존재로 규정된다. 누구든 그를 살해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동물과 같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신성한 제의의 희생양이 될 수도 없다. 이처럼 호모 사케르는 인간의 법질서와 신의 질서 양쪽 모두에서 배제된 존재이지만, 바로 그 배제됨을 통해 주권 권리의 무제한적인 힘이 미치는 대상이 된다. 아감베에게 호모 사케르는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채 권리에 완전히 노출된 벌거벗은 생명의 상징이다.

아감베의 논의가 던지는 가장 큰 화두는, 이러한 예외상태와 호모 사케르가 더 이상 전염병의 창궐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난민 수용소, 불법 이민자 구역, 테러 용의자 수감 시설 등 현대 국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경계 지대에서 법적 권리가 박탈당한 벌거벗은 생명이 일상적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국 그에게 현대의 주권 권리이란, 법의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가 보장하는 동시에, 언제든 합법의 테두리에서 법을 정지시키고 특정 생명을 법의 보호 바깥으로 추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생명관리권력의 두 얼굴을 가진 것이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목적론적 관점에 따르면, 권리의 정당성은 국가의 자연 발생적 기원이 아닌, 공동선을 실현하려는 것에 있다.
- ② (가): 사회계약론의 등장으로 국가는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나): 주권자가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상태를 통해 권리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 ④ (나):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로부터 배제되었기 때문에 주권 권리의 직접적인 지배에서도 벗어난다.
- ⑤ (나): 현대 국가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예외상태를 일상화함으로써 시민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5.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인위적 구성을 보았다.
- ②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개인 외부의 초월적 존재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③ 국민주권의 원리는 사회계약론과 마찬가지로 권리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관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 ④ 입헌주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 권리이 개인의 동의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6.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나)의 아감베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권력은 시민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벌거벗은 생명'을 산출한다.
- ② 인간의 삶은 생존적 차원과 공동체 내에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 ③ 주권 권력이란 법의 적용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할 때에만 그 정당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이 정치적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⑤ 국가 공동체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형성되므로, 국가는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밑줄 친 ⑨에 내포된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 세계의 법률적 보호 체계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 ②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신성한 의식의 일부가 될 자격이 없다.
- ③ 그의 생명은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법적, 종교적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
- ④ 주권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생명이 박탈될 수 있다.
- ⑤ 살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최근 심각한 전염병을 겪은 정부는 '스마트 방역 도시' 구축을 선포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시 전역에 설치된 인공지능 CCTV를 통해 모든 시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즉시 경리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안전한 공동체, 건강한 삶'이라는 구호 아래 정책의 불가피성을 홍보했고, 대다수 시민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정책 시행에 동의했다. 정책 시행 이후 전염병 확산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는 정부가 방역과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의 동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정부는 전염병 확산이 종료된 후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심야에 허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들을 찾아내 시설에 강제 수용하거나,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① (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기능을 중시했으므로, <보기>의 정부가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겠군.
- ② (가)의 루소는, <보기>의 시민들이 정책 시행에 동의한 것은 자신들의 권리 일부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노숙인을 강제 수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겠군.
- ③ (나)의 아감베의 관점에서 볼 때, <보기>의 노숙인과 시위 참가자들은 극한 상황에서 법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예외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겠군.
- ④ (가)의 입헌주의와 (나)의 아감베의 관점을 종합하면, <보기>의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한다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의 아감베는 <보기>의 정부가 선포한 안전한 공동체가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법의 보호 바깥으로 배제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라고 분석하겠군.

9. ⑨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다리 위에는 아름다운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 ② 할머니를 보자 무거웠던 마음이 놓였다.
- ③ 드디어 우리 동네와 옆 동네를 잇는 다리가 놓였다.
- ④ 그는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⑤ 불안했던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고서야 잠이 놓였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p>근대 국가의 법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국민에게 특정한 의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와 의무의 조화 문제는 우리 헌법에서도 중요한 원리로 다루어진다.</p> <p>[A]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이 어떠한 신념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한편,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국가 존립을 위한 핵심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평화주의적 양심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는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 두 헌법적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p> <p>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으로,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국가 안보라는 공익에 비해 우선할 수 있는 개인적 사정으로 보아, 법률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행위가 곧 병역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p> <p>이러한 처벌의 정당성을 두고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① <u>한편</u>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인간 존엄성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국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 특히 헌법에서 최우선 가치로 삼는 생명에 대한 살상 기술을 익히는 군사훈련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② <u>다른 한편</u>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국가 존립을 위한 최상위의 헌법적 가치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병역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오랜 논쟁 끝에 2018년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③ <u>다수의견</u>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라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즉,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④ <u>소수의견</u>은 국방의 의무가 지닌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심이 진실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병역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국가 안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p>
--

10. 학생이 웃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문단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핵심 화제로 파악하고, 이것이 어떤 헌법적 가치들과 충돌하는지 확인하며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한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 ③ 3문단과 4문단에 제시된 대립적 관점들을 비교하며, 각 입장의 핵심 논거가 무엇인지 분석적으로 읽는다.
- ④ ‘정당한 사유’, ‘대체복무제’와 같은 핵심 개념이 각 주장이나 판단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에 주목하며 읽는다.
- ⑤ 각 주장의 타당성을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에 비추어 판단하고, 글쓴이가 옹호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11. [A]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 중에는 그 과정에서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
- ②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겠군.
- ③ 헌법 제19조와 제39조는 헌법의 중요한 원리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는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겠군.
- ④ 근대 국가의 법체계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를 위한 의무 중 어느 한쪽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것을 지양하겠군.
- ⑤ 헌법 제19조는 국가 존립이라는 공익을 해치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겠군.

12. ①과 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과 ②은 모두 가장 높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논거로 삼고 있다.
- ② ①과 ②은 모두 공동체의 유지가 개인에게 주는 혜택을 강조한다.
- ③ 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②는 병역법에 명시된 의무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④ ①은 생명 존중을 위해 국방의 의무로부터의 예외 없는 면제를, ②는 국가 안보를 위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예외 없는 제한을 주장한다.
- ⑤ ①은 국가가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②는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본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한 ①, ②의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갑은, 2018년 현법재판소 결정 이후 도입된 대체복무제에 따라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갑이 배정받은 근무 기관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부설 연구소였다. 갑은 비록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군수물자 생산에 기여하는 것 역시 자신의 평화주의 신념에 어긋난다며 배정된 대체복무를 거부했다.

- ① ①는 국가가 갑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그 복무의 내용이 또 다른 양심의 자유 침해를 야기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보겠군.
- ② ②는 갑과 같은 주장이 허용될 경우,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무력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겠군.
- ③ ③는 대체복무의 종류까지 개인의 양심에 맞춰주는 것은, 양심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사례라고 보겠군.
- ④ ④와 ⑤ 모두 갑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겠군.
- ⑤ ⑤는 대체복무제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상황이므로,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A의 행위가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공간 정보를 얻는 측량 기술은 고대부터 문명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도 제작, 건축, 토지 경계 확정 등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삼각측량과 현대적인 위성측량은 위치를 결정하는 원리를 다르지만, 모두 공간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다.

삼각측량은 이미 거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두 지점, 즉 ‘기선(baseline)’의 양 끝점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의 각도를 측정하여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삼각형의 한 변인 기선의 길이와 양 끝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모양과 크기가 하나로 결정된다는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 지점의 위치가 좌표로 확정되면, 그 지점은 다시 새로운 기선의 한쪽 끝점이 되어 또 다른 미지의 지점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연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이 좌표를 통해 공간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길을 열었다면, 삼각측량은 그 원리를 실제 지표면에 적용하여 미지의 공간을 기지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① 대표적인 기술이다.

하지만 삼각측량은 기선의 양 끝점에서 목표 지점까지의 시야가 확보되어야만 각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산이나 높은 건물 같은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측량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측량 과정이 마치 사슬처럼 이어진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지점을 측량하기 위해 이전에 측량된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이 반복

되면서, 초기에 발생한 작은 측정 오차가 뒤따르는 측량 과정에 계속 더해지고 증폭되는 ⑦ 오차의 누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일수록 위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위성측량은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구현된다. 위성측량은 각도를 이용하는 삼각측량과 달리, 여러 위성에서 발신된 전파를 수신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위성 하나로부터의 거리를 알면 수신기의 위치는 그 위성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대한 구위의 한 점이 된다. 두 번째 위성과의 거리를 추가로 알면, 두 구가 만나서 생기는 원 위의 한 점으로 위치가 좁혀진다. 이론적으로는 세 개의 위성만 있으면 위치를 두 점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네 번째 위성 정보를 더하면 고도를 포함한 3차원 위치가 하나의 점으로 정확하게 결정된다.

14. 윗글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삼각측량은 측량을 반복할수록 기선의 길이가 점차 짧아져 정밀도가 감소하겠군.
- ② 위성측량은 최소 세 개의 위성을 이용하므로, 두 개의 위성 신호만으로는 수신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겠군.
- ③ 삼각측량을 이용하면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전 국토의 정확한 좌표 정보를 연쇄적으로 획득할 수 있겠군.
- ④ 위성측량과 삼각측량은 모두 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점의 위치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겠군.
- ⑤ 삼각측량과 위성측량은 모두 세 개 이상의 기준점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의 3차원 위치를 특정하겠군.

15. ⑦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전에 측량한 지점을 다음 측량의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 ② 산이나 건물 같은 장애물로 인해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한 각도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 ③ 삼각형의 한 변과 양 끝 각의 크기만으로는 목표 지점의 좌표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최초의 기선 설정 과정에서부터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한계 때문이다.
- ⑤ 측량 지점이 기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측정해야 하는 각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이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을 사이에 둔 두 지역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측량이 시작되었다. 측량팀은 강의 남쪽에 이미 정확한 거리를 알고 있는 두 지점 A, B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측량사 '갑': A와 B에서 강 건너편의 교각 설치 지점 P를 바라보고 각각의 각도를 측정하여 P의 위치를 계산했다. 이어서, 계산된 AP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 더 북쪽에 있는 지점 Q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계산했다.

측량사 '을':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성들로부터 오는 전파를 동시에 수신하였고, 수신기와 네 개의 위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인 P 지점의 3차원 좌표를 획득했다.

- ① '갑'은 '을'과 달리, A 지점과 P 지점을 관측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야만 측량이 가능했겠군.
- ② '갑'이 측량한 Q 지점은, '을'이 측량한 P 지점보다 오차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성이 더 크겠군.
- ③ '을'은 '갑'과 달리, P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A, B 지점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겠군.
- ④ '을'이 측정한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갑'이 측정한 A와 B 지점 사이의 각도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갑'과 달리 '을'의 측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기준점의 개수가 부족할 때 증폭되겠군.

17. ①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창적인
- ② 부수적인
- ③ 전형적인
- ④ 포괄적인
- ⑤ 추상적인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게 봄비고 법석하는 정거장 품의 혼잡을 옮겨 싣고 차는 떠났다. 그런 정거장의 거리와 기억이 멀어 감을 따라 이 삼동 찾간에 가득 실린 무질서와 혼분도 차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앉고 섰을밖에 없는 사람은 선 채로나마 자리가 잡힌 셈이다.

이 찾간 한끝 바로 출입구 안쪽에 자리 잡은 나 역시 담배를 피워 물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던 것이다.

'웬 사람들이 무슨 일로 어디를 가노라 이 야단들인가.'

혼잡한 정거장이나 부두에 서게 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리 보는 것이 나의 버릇이지만 그러나,

- ㉠ '이 중에는 남모를 설움과 근심 걱정을 가지고 아득한 길을 떠나는 이도 있으려나'

이런 감상적인 심정으로 보다도, 지금은 단지 **인산인해**라는 사람 틈에 부대끼는 **괴로운 역정**일는지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도 그런 역정으로 주위를 훑겨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또 아득한 길을 떠나는 사람의 서러운 표정을 찾아 구경하려는 호기심도 없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방심 상태인 내 눈의 요깃거리는 되겠지만.

방심 상태라면 나만도 아닌 모양이었다. 진장에서 방심 상태로,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제 본색으로 돌아가 각각 제 버릇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우리들 중에 모자 대신 편물 목도리를 머리에다 감은 ① **농촌 짚은이**가 금방 회복한 제 버릇으로 그만 적잖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실수라는 것은, 통로에 섰던 그 짚은이가 늘 하던 제 버릇대로 뱉은 가래침이 공교롭게도 나와 마주 앉은 ⑤ **중년 신사**의 구두 콧등에 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그것만도 적잖은 실수겠지만 그렇게까지 여러 사람의 눈이 둥그레서 보게끔 큰 실수로 만든 것은 그 구두의 발작적 행동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구두는 **발작적으로** 통로 바닥이 빠져라고 쾅쾅 뛰놀았다. 그러나 그리 매끄럽지가 못한 구두코라 용이히 떨어질 리가 없었다. 그래 더욱 화가 난 구두는 이번에는 호되게 허공을 걷어차기 시작했다. 그래 튀어나는 비말의 피해를 나도 받았지만 그 서슬에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던 그 짚은이는 정면으로 튀어나는 비말을 피하여 그저 뒤로 물러서 [A] 기만 했다. 그러나 그 짚은이의 동행인 듯한 ⑤ **노인**이 제 보꾸미에서 낡은 신문지를 한 줌 찢어 짚은이를 주었다. 짚은이는, 당장 걷어차거나 쫓아 나와 물려는 맹수나 어르듯이 그 구두 콧등 앞으로 조심히 신문지 쥔 손을 내밀어 보았다. 그러나 구두는 물지도 차지도 않고 도리어 그 손을 피하듯이 움츠러들었다. 그러자 희고 부드러운 종이가 그 구두코를 닦기 시작하였다. 그런 종이는 많기도 하고 아깝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 구두가 그렇게 야단할 때보다도 더 의외라는 듯이 수북이 쌓이고 또 쌓이는 종이 무더기를 일삼아 보게끔 되었다. ㉡ **그렇게 씻고 또 씻고 필요 이상으로 씻는 것은 그 짚은이가 기껏 미안해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였다.** 혹은 그것이 더러워서만 그런다기보다 더러운 사람의 것이므로 더욱 그런다는 듯도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일삼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비죽이고 외연을 하고 말았다. 물론 그 짚은이는, 미안 이상의 모욕감으로 얼굴이 빨개져서 천장만을 쳐다보며 이따금 한숨을 지었다. 그 중년 신사와 통로를 격하여 나란히 앉은 ④ **당꼬 바지는 다소 의분을 느꼈음**인지 그 우뚝한 코를 벌름거리며 흰자 많은 눈으로 연방 그 신사를 결눈질하였다. 그러나 그 신사의 눈과 마주치기만 하면 슬쩍 시선을 거두고 딩딩한 코를 천장으로 치키고 마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 신사의 눈과 마주치기를 꺼려 하는 것은 비단 당꼬 바지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코가 꽤 딩딩한 당꼬 바지도 그럴 적에야, 할 정도로 ㉢ **그 신사의 눈은 보기애 좀 불안스럽도록 뒤틀거리는 눈방울**이었다. 일부러 점잔을 빼느라 혹은 노상 호령 기를 뽑내느라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약간 피해망상광의

증상이 있어 저도 어쩔 수 없이 뒤룩거리게 되는 눈인지도 모를 것이었다. 어쨌든 척 마주 보기가 거북스러운 눈이라 아까 신문지를 주던 곰방대 영감은 ③담배를 붙이며 도적해 보던 결눈질을 들키자, 채 불이 당기기도 전에 성냥을 불어 끄리만큼 낭패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렇지 않아도 본시부터 이렇게 할 이야기거리가 없이 덤덤하던 우리 자리는 더욱 멋쩍게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누가 솔선해서 그런 침묵을 깨뜨려야 할 책임자가 있을리 없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때 당꼬 바지 옆에 앉은 가죽 재킷 입은 ④젊은이가 많은편에 캡 쓴 젊은이에게 “자네 자리가미*가셨나” 하여, “응 있어.”하고 일부러 꺼내까지 주는 것을 ⑤“이 사람 자리가민 나 두 있네.”하고 한 뭉치 꺼내 보이며 코를 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캡 쓴 젊은이는 키킬 웃으면서 맞은 코를 풀어서는 그런 종이가 수북한 통로 바닥으로 던졌다.

그러나 그 옆의 당꼬 바지가 빙그레 웃었을 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말았다. 내 앞의 신사는 그저 여전히 눈을 뒤룩거리며 두세 번 큰 하품을 하였을 뿐이다. 좀 실례의 말이지만 마주 앉은 내가 느끼는 그 신사의 하품은 옛말이나 괴담에, 사람을 취하게 하는 무슨 김이나 악취를 뿜는다는 두꺼비의 하품 같은 것이었다.

- 최명익, 「장삼이사」 -

*자리가미: 휴지의 일본어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외부 사건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이야기 밖 서술자가 관찰자로 위치하여, 인물들의 행동과 반응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주관적인 인상을 바탕으로 관찰한 사건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 ④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위를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긴박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19. ①~⑤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의 실수에 대해 ②가 과민하게 반응하자, ④는 ③과 함께 ⑤를 위로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였다.
- ② ②의 모욕적인 행동에 불만을 품은 ④는, ①의 편에 서서 ②의 잘못을 지적하며 꾸짖었다.
- ③ ③은 ①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려 했으나, ②의 위압적인 태도에 굴복하여 결국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였다.
- ④ ④는 ②의 오만한 태도를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을 했고, 이는 침묵하던 다른 인물들의 적극적인 동조를 이끌어 냈다.
- ⑤ ①의 행동으로 인해 축발된 ②의 반응은 주위의 시선을 끌었으며, 이에 ③은 ①에게 도움을 주었다.

20.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은 혼잡한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화자의 시선이 드러난다.
- ② ②은 화가 난 인물의 의도를 화자의 추측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 ③ ③은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다른 인물들이 느끼는 거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④은 인물의 행동을 통해 그가 처한 낭패스러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⑤은 다른 인물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화이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장삼이사」는 삼등 열차 내부에서 우연히 만난 인물들을 이름이 아닌 사물로 지칭함으로써 1930년대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파편화된 사회의 단면을 일상적 공간을 통해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인격이 배제된 채 계층을 드러내는 기호로만 존재하는 근대인의 피상적인 관계와 소외를 상징한다. 이러한 관찰은 당대 사회의 단절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속에 온전히 섞이지 못하는 지식인의 내면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 ① ‘나’가 주변 사람들을 ‘인산인해’로 여기며 ‘괴로운 역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과 거리를 둔 채 관찰하는 지식인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구두’가 ‘발작적으로’ ‘뛰놀았다’고 서술하는 것은, 인격이 배제된 채 소유물로만 존재하는 인물의 피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군.
- ③ ‘당꼬 바지’가 ‘의분’을 느꼈음에도 ‘슬쩍 시선을 거두는’ 것에서, 단절된 현실을 인식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가죽 재킷’과 ‘캡 쓴 젊은이’의 행동이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개인들의 소통 시도가 무산되는 파편화된 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나’가 ‘신사’의 행위를 ‘두꺼비의 하품’에 빗대는 것에서,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넓힘으로써 대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①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② 두 손으로 따뜻한 불을 쓸어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 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 윤동주, 「소년」 -

(나)

산마다 ③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뭐헌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헌다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뭔 혀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뭔 소용이다요
뭔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헌다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저 달 금방 저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터니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헌다요, 뭔 소용이다요.

- 김용택, 「들국」 -

(다)

나는 교산을 찾아보고 오리라던 강릉행을 서둘러 거두어 서울로 돌아온 다음 오늘 새벽 일찍이 난설헌 허초희(許楚姬)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자욱한 새벽 안개 속을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오죽헌과는 달리 허난설헌의 무덤은 우리의 상투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이나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판단에서 한발 물러나 그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당신이 힘들게 얻어 낸 결론이 ④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철폐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일과 직접 맞물려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한 시대의 정점에 오르는 성취가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생애를 읽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이곳 지월리에 도 와야 합니다. 사랑했던 오라버니의 유배와 죽음 그리고 존경했던 스승 이달(李達)의 좌절, 동시대의 불행한 여성에 대하여

키워 온 그녀의 연민과 애정, 남편의 방탕과 학대 그리고 연이은 어린 남매의 죽음. 스물일곱의 짧은 삶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육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임당의 고아한 화조도(花鳥圖)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봉건적 질곡의 혼적이 난설헌의 차가운 시비(詩碑)* 곳곳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진실이 그대로 역사의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마저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리 현실을 창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갈수록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가 해체되고, 자신은 물론 자식과 남편마저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 형태로 갖도록 강요되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고 보면 아픔과 비극의 화신인 난설헌이 설 자리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월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 남매의 무덤 앞에 냉수 떼 놓고 소지 올려 넋을 부르며 “밤마다 사이좋게 손잡고 놀아라.”라고 당부하던 허초희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과 시대가 선포되고 과거와 함께 현재의 모순까지 묻혀져 가는 오늘의 현실에 맞서서 진정한 인간적 고뇌를 형상화하는 작업보다 우리를 힘 있게 지탱해 주는 가치는 없다고 믿습니다.

- 신영복,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 줍니다.」 -

*시비: 시를 쓴 비석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②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특정한 정서를 중심으로 내면을 성찰하거나 사유를 확장하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청자에게 말을 전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운동주의 시에서 '하늘'은 종종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며, 동시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성찰의 거울로 기능한다. 화자는 순수한 하늘과 교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슬픔을 느낀다. 이때 슬픔이라는 정서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기에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는 고통스러운 성찰의 결과물이다.

- ① '단풍잎'이 떨어지는 '슬픈 가을'의 풍경 속에서도 '봄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② '하늘을 들여다보'자 '파란 물감이' 손바닥에까지 묻어나는 것은, 화자가 순수한 세계와의 합일을 소망하는 내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③ '손금'에 흐르는 '맑은 강물'은 순수한 하늘의 이미지가 화자의 내면으로 이어진 것으로, 자신을 비추어보는 성찰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강물 속'에 비친 '순이의 얼굴'이 '슬픈 얼굴'인 것은, 화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대상에게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 ⑤ '황홀히 눈을 감'아도 대상의 '얼굴'이 '어'리는 것은, 순수한 세계를 갈망할수록 자신의 슬픈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성찰을 보여주는군.

24. (나)의 화자에 대한 이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신의 처지와 대비하여, 기다림의 행위 마저 무의미하게 느끼고 있다.
- ②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며,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확신하고 있다.
- ③ 자신에 대한 자책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④ '들국'으로 피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임을 맞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⑤ '뭐헌다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떠나간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다.

25. ①과 ②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을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향하게 한다.
- ②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며 그리움의 정서를 촉발한다.
- ③ 소멸과 생성의 순환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형성한다.
- ④ 떠나간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 ⑤ 화자의 고독한 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26.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외부 세계와 내면세계의 경계가 이원화되는 감각적 체험의 순간을 보여준다.
- ② ㉠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통해 화자 내면의 슬픔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준다.
- ③ ㉡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고발한다.
- ④ ㉡은 개인의 삶에 대한 공감 없이 사회적 차원의 피상적인 분석에 해당한다.
- ⑤ ㉠과 ㉡은 모두 개인의 고통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다)는 작가가 특정한 공간으로 독자인 '당신'을 초대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사유 과정을 독자와 공유하는 글이다. 작가는 이 과정에서 대조적인 공간이나 인물을 제시하여 통념적인 가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독자가 외면하기 쉬운 비극적 진실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독자가 작가의 여정에 동참하여, 개인의 비극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를 함께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

- ① '오죽헌'과 달리 '허난설헌의 무덤'이 상투적 판단에서 물러나게 한다고 한 것에서, 통념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유를 시작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글쓴이가 '당신'에게 '지월리로 오시기 바란다고 권유하는 것은, 개인의 비극을 함께 성찰하는 여정에 동참시키려는 서술 전략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사임당의 '화조도'와 난설헌의 '차가운 시비'를 대조하여 '봉건적 질곡의 혼적'을 부각하는 것은, 화려한 성취보다 아픔의 혼적을 통해 진실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는군.
- ④ '허초희의 음성'이 '시비에 각인되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과거 인물의 목소리를 현재적 공간으로 불러내어 독자가 그 고뇌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장치이겠군.
- ⑤ '모든 가치가 해체'된 현재 난설헌의 가족마저도 '상품이라는 교환 가치'로 전락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은, 통념에 의한 가치판단 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 봉사가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요사이 공연히 마음이 슬퍼지고 팔자가 기박한 것이 뼈에 사무치게 서럽게 생각되더구나. 그래서 문을 나서서 너를 마중한다고 하염없이 더듬어 가다가 구렁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라. 다행스럽게도 그때 마침 화주승을 만나 목숨을 구했는데, 화주승 말이 내가 눈을 못보는 것도 ⑦전생죄(前生罪) 때문이요 빌어먹는 것도 전생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쌀 삼백 석을 시주하면 내 눈이 뜨이고 네 일생도 크게 귀하게 된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고 문득 적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삼백 석을 ⑧권선책에 적으라 하고 왔느니라.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우리 부녀가 한 푼 돈과 한 흡 쌀도 마련할 길이 없는 터에 어디 가서 이런 시주를 하겠느냐? 속절없이 부처님을 속여서 장차 큰 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슬퍼하는 것이란다."

청이 듣고나서 아버지를 위로하느라고,

"아버지 슬퍼하지 마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부처님께서도 아버지의 이와 같은 정성에 감동하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하고, 나가서 저녁밥을 차려다 권했으나 먹지 않고 탄식하며 눈물만 흘렸다. 청이 민망히 여겨

"하느님이 비록 높이 계시지만 살피심이 밝으셔서, 아버지 정성을 천지일월(天地日月)이 밝히 내려다 보시고 감복하실 것이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하며 온갖 말로 위로를 하지만 진실로 난처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가, 밤중이 되어 목욕재계하고 뜰에 내려가 자리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 빙기를,

'저 심청은 앞못보는 아비를 위하여 죽기를 피치 아니하옵니다. 이제 아비의 감은 눈이 뜨일 수 있도록 부처님께 시주하고자 하오나, 시주 쌀 삼백 석을 구할 길이 없어 도리어 부처님을 속인 죄를 받게 되었사오니 ⑨천지신명은 살피소서.'

밤새도록 빌고 방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탄식하다가 잠깐 조는데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

"내일 그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니, 팔리어 죽을 곳을 가게 되더라도 피하지 말라. 그대의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사 죽을 곳에 자연 귀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문득 간데없기에 깨어보니 ⑩꿈이더라. 마음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의아해 하더라.

각설, 남경에서 배를 타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물건을 싣고 북경과 다른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팔았다. 해마다 큰 바다를 건너는데 유리국 지방에 인당수란 물이 있었고 물 가운데 못된 귀신이 있어서, 작은 배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나 보물과 비단을 많이 실은 배는 수신(水神)께 사람을 바쳐 제사를 올리고 나서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해마다 처녀를 사다가 인당수에 제물로 바치곤 하되, 이때 마침 그들이 와서 마을마다 처녀를 사겠노라고 외치며 다니기에, 청이 듣고 기뻐하여 급히 나가서,

"나같은 사람이라도 사려 하시나요?" / 라고 물더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쌀 삼백 석에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나 왕비가 된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궁궐에서 맹인 잔치를 연다.

그렇저령 마친 후 점심밥 포식하고 여인을 하직 후에 황성으로 올라갈 제 ⑪촌촌전진(寸寸前進) 여러 날에 낙수교 얼른 지나 녹수정 들어가니 어떤 여인이 부르는 말이,

"저기 가는 심 봉사님. 이리 잠깐 오옵시오."

심 봉사 괴이하여 가까이 들어가니 손을 잡고 인도하여 사랑으로 들어가서 ⑫석반(夕飯)을 올리거늘 심 봉사 안 마음에, '이 상하다 괴이하다. 날 알 이가 없건마는 어인 일로 관대하노' 석반을 먹은 후에 그 여인이 다시 나와,

"심 봉사는 내당으로 가사이다."

심 봉사 하는 말이,

"바깥양반 유무는 모르거니와 어찌 내당으로 들어가리까. 무슨 우환 있소? 나는 독경(讀經) 못 하오."

그 여인 대답하되, / "잡말 말고 가사이다."

끌려 들어가며 생각하되, '내가 아마도 읍란 중에 드나 보다.' 대청에 올라가서 좌상에 앉은 후에 동편에서 한 여인이 하는 말이, / "심 봉사지요?"

"나를 어찌 아시리오마는 아는 도리 있으리오."

"내 성은 안씨요, 황성에서 사옵더니 불행하여 부모 일찍 여의고, 노복이 산망(散亡)하고 이 집을 지키오나, 시년(時年)이 이십오 세 되도록 정혼치 못하옵고 점서(占筮)를 배워 평생을 아는지라. 이십오 세 길운이요, 간밤에 ⑬꿈을 꾸니 하늘의 일월이 떨어져 강중(江中)에 잠기거늘 첨이 견져 품에 품어 보이기로 즉시 깨어 해몽하여 점괘를 본즉, 일월은 사람의 안목(眼目)이매 나와 같이 맹인인 줄 짐작하고, 물에 잠겨 보였으매 성자(姓字)는 심씨인 줄 짐작하여 시비를 내어보내 문전으로 가는 맹인을 차례로 문삽더니 천우신조하여 금일 상봉하오니 연분인가 하나이다. 첨이 비록 용우(庸愚)하나 버리시지 아니하면 군자를 받들리니 군자 의향 어떠하오니까?"

심 봉사 미소 답 월, / "말씀은 좋거니와 그러기가 쉬우리까."

- 작자미상, 「심청전」 -

28. ①와 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와 ②는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② ①은 인물의 의지를 시험하는 과제를, ②는 인물이 지향하는 소망의 실현을 암시한다.
- ③ ①은 인물이 처한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②는 인물이 겪게 될 시련을 알려준다.
- ④ ①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을 통해, ②는 인물의 능동적인 해석을 통해 앞으로의 사건 전개와 연결된다.
- ⑤ ①의 내용은 인물의 현실적 욕망이, ②의 내용은 인물의 이타적인 희생정신이 각각 투영된 결과이다.

29.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 봉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를 선불리 약속한 뒤,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
- ② 화주승은 심 봉사의 처지를 이용하여,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 그에게 시주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당수를 무사히 전너는 것을 목적으로 제물을 구하고 있다.
- ④ 심청은 부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게 의지하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⑤ 안씨는 심 봉사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 길을 가는 심 봉사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

3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주승이 심 봉사의 현재 불행을 설명하고 시주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현실의 문제이다.
- ② ㉡은 심 봉사가 자신의 약속을 공식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로 인해 심 봉사가 심적 압박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 ③ ㉢은 심청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이며, 꿈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④ ㉣은 심 봉사가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황성으로 가는 굼뜬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⑤ ㉤은 심 봉사에 대한 상대방의 호의를 나타내는 소재이자, 심 봉사가 상황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심청전」은 유교적 효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효행의 동기와 과정이 당대의 현실적인 경제 논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작품 속 인물들은 맹목적인 윤리 실천이 아닌, '시주'나 '제물'과 같은 종교적 명분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를 통해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결핍을 해결하고 사회적 신분 상승을 추구한다. 즉, 이 작품의 효행은 지극한 효심의 발현인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한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반영된 경제적 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분석할 수 있다.

- ① 화주승이 심 봉사에게 시주를 권하는 것은, '전생죄'라는 종교적 명분을 통해 심 봉사의 재물과 그의 소원 성취를 맞바꾸려는 거래를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심 봉사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기로 한 것은, 눈을 뜨게 된다는 종교적 구원뿐만 아니라 딸이 귀하게 된다는 세속적 보상을 기대한 거래 행위로 볼 수 있겠군.
- ③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여 하늘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려는 심청과 초월적 존재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심청이 왕비가 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계약을 통해 효를 실천하고 결국 최고의 신분 상승을 성취한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⑤ 안씨 부인이 점괘와 해몽을 근거로 심 봉사에게 청혼하는 것은, 자신의 길운을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결핍을 자신과 연결 짓는 또 다른 형태의 거래로 볼 수 있겠군.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슬프다, ㉠기민(民)들아 진출(賑恤) 기별 들었는가.
당초에 뵙는 곡식 정비하야 받았더니
진출청(賑恤廳)* 모든 쥐가 각 창의 구멍을 뚫고
주야로 나들면서 섬섬이 까먹었네.
이번의 타낸 환곡 빈껍질로 의포하에
적조맡은 저 두승아,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밑음 철목으로 삼겼거늘
무단이 환면(面)하고 빙공영사(憑公營私)* 하나슨다.
엇그제 넓고 큰 도량이 간탐코 협애하다.
변세(變世)는 변세(變世)로다 사람이 거북 되어
진창의 들어앉아 모든 쥐를 살피더니
본성(本性)이 쥐의 모습[鼠狀]이라 마침내 어이 되어

창중(倉中) 진곡미를 다 주어 물어 가다
 여뀌 잎을 쿨을 삼고 저물녘에 간직하여 넣어 두니
 석서가(碩鼠歌) 일어난들 교혈여부(狡穴餘腐)* 뉘 있으리
 (중략)
 세상을 살펴보니 시비도 부질없다.
 귀머거리 소경 부러울세라, 합연무지* 원이로다.
 시절이 험난(難)하야 사람을 다 죽일 제
 참혹한 염역조차 천지의 그물 되어
 기한의 남은 백성 걸리는 이 다 죽는고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억조군민億 다 죽거다.
 백성이 없은 후에 국가를 어이하리.
 나라이 나라아녀 백성이 나라이요,
 백성이 백성아녀 의식이 백성이다.
 의식 백성 다 없으니 이 시절 어이 될꼬
 유구무언하고 속수무책이라
 노심초사하니 낙담상기뿐이로다.
 인곡을 불변할 제 상식이 강진뿐가
 골육상잔* 저 흥한 일 무수히 있건마는.
 여차여차 환실관장 은휘령* 장할시고
 관청의 문을 굳게 잠그니 고변호소 뉘 있으리.

- 작자미상, 「임계탄」 -

*진흘청: 흥년에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은 관아.
 *빙공영사: 공적인 일임을 빙자해서 사리를 도모하는 것.
 *석서가: <시경>에 나온 노래 / '큰 쥐여, 너를 쫓아내고 우리는 이 땅
 을 떠나리라'는 내용
 *교혈여부: 간교한 짐승의 굴속에 남은 곡식.
 *합연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의미
 *골육상잔: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해치고 죽임.
 *환실관장 은휘령: 환실관장은 실책을 지탄받을까 걱정하는 관장. 은휘
 령은 비리를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말.

(나)

하늘이 얼고 눈 깊은 날에 ⑤님 찾으러 천상으로갈제
 신 버서 손에 쥐고 보선 버서 품에 품고 곰튀님튀님튀곰튀 천
 방지방 지방천방 한번도 쉬지말고 허위허위 올라가니
 버선 버슨 발은 아니 쓰리되 생각 깊은 가슴이 산득산득하여라

- 작자미상-

32.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유사한 시어나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을 통해 시적 의미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고, ㉡은 화자를 구원해 줄 대상이다.
- ③ ㉠과 달리 ㉡은 화자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 ⑤ ㉠은 당대 현실의 문제를 상징하고, ㉡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고전 시가는 화자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대의 구체적인 현실을 담아내는 양상과 개인의 내면세계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화자는 역사적 현실에 참여하는 관찰자로서, 구체적인 제도나 사회상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우의적 기법 등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의미를 드러낸다. 후자의 경우, 화자는 외부 세계를 자신의 개인적 정서를 투영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이때 현실적 제약을 넘어서는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거나, 물리적 감각을 압도하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의 '진흘청'은 화자가 묘사하는 세계가 실제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군.
- ② (나)에서 화자가 '하늘이 얼고 눈 깊은' 현실에 주목하는 것은,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겠군.
- ③ (가)에서 '쥐'와 '거북'의 행태를 묘사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고, (나)의 '천상'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공간이겠군.
- ④ (가)의 '골육상잔'과 (나)의 '곰튀님튀님튀곰튀'는 모두, 현실의 결핍으로 인해 벌어진 행위로, 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군.
- ⑤ (가)의 '고변호소 뉘 있으리'에서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산득산득'에는 내적 고통이 외적 고통을 능가하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수능맞집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환경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OOO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입지 않는 낡은 옷이나 다 쓴 플라스틱 물통을 버릴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아마 대부분 아깝다는 생각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얼마 전 낡아서 입지 못하는 청바지를 버리려다 '이걸로 다른 것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개념을 알게 되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업사이클링(Upcycling)'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리사이클링(Recycling)'은 익숙하실 겁니다. 업사이클링은 바로 이 리사이클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자료 1]을 봐주세요. 리사이클링은 기존 제품을 원료 형태로 분해하여 원래 용도나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업사이클링은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이나 활용도를 더해 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자원을 다시 쓰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면을 넘기며) [자료 2]는 업사이클링의 실제 사례들입니다. 왼쪽 사진은 폐기된 소방 호스를 활용해 만든 튼튼한 지갑이고, 오른쪽 사진은 버려진 광고 현수막을 이용해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입니다. 이처럼 쓸모없어 보이던 물건들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만나 멋진 제품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저도 처음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업사이클링은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버려질 물건이 있다면, 바로 버리기 전에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환경을 살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져 청중과 상호 작용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④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청중에게 권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

*리사이클링(Recycling):

제품 → 원료화 → 재활용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 → 디자인/아이디어 추가

→ 새로운 가치의 제품

[자료 2]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의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였다.
-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리사이클링이 업사이클링보다 환경적으로 더 우수함을 강조하였다.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버려지는 제품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들어진 사례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었다.
- ④ [자료 2]를 활용하여, 업사이클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시장의 경제적 규모 변화를 설명하였다.

37. <보기>는 발표를 들은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학생 1: 업사이클링이 리사이클링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알게 되어서 유익했어. 그런데 발표에서 소개된 제품들 말고, 개인이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아이템에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

학생 2: 나는 업사이클링이 그냥 '재활용'의 어려운 말인 줄 알았는데, 가치를 더 높인다는 점에서 다르구나. 발표를 듣고 나니 내가 가진 낡은 에코백에 그림을 그려서 새롭게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생 3: 폐소방 호스나 현수막 같은 특수한 재료는 기업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업사이클링이 환경에 좋은 건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 인식을 수정하고, 이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제시된 사례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발표 내용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④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가 마지막에 권유한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정보나 현실적 한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38-42] (가)는 학생회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문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다들 오셨네요. 오늘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학교 게시판에 사물함 이용에 대한 불만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학생 2: 맞아요. 저희 반 친구들도 사물함이 너무 낡고 부족해서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복도 끝에 있는 사물함들은 문이 제대로 안 닫히거나 잠금장치가 고장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 3: 얼마 전 저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전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75%가 현재 사물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그 원인으로 '사물함 노후 및 파손(45%)', '사물함 수량 부족(30%)'을 꼽았어요.

학생 1: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 문제 상황이 더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봅시다.

학생 2: 가장 좋은 건 낡은 사물함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 아닐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

학생 3: 좋은 의견이지만, 전교생의 사물함을 한 번에 교체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 1: 저도 학생 3의 의견에 동의해요.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우선 파손된 사물함을 수리하고, 부족한 수량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교과서를 학교에 두고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수요가 다르니,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배정하는 거죠.

학생 2: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게 억지로 배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물함이 필요한 학생들은 물건도 더 잘 보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 3: 네, 좋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사물함 전수 조사를 통해 수리가 필요한 사물함 목록을 만들고, 희망자 조사를 통해 실제 필요한 사물함 수량을 파악해서 학교에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 1: 좋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교장 선생님께 드릴 건의문 초고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제목: 노후 학생 사물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건의
교장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OOO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나 힘써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 사물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사물함은 대부분 노후되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잠금장치가 파손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물품 보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사물함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학생들은 아예 사물함을 배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사물함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주된 원인으로 '사물함 노후 및 파손(45%)'과 '수량 부족(30%)'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전체 사물함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파손된 사물함을 수리해 주십시오. 잠금장치나 문짝 등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이 많습니다. 이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사물함 희망자 조사를 통한 새로운 배정 방식을 도입해 주십시오.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현재 방식 대신, 사물함 사용을 희망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면 한정된 사물함을 꼭 필요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분실물 발생률이 감소하고,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본 건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 (가)의 '학생 3'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발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의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39. [A]에 드러난 '학생 1'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견을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논의의 초점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객관적인 통계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40.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각각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학생 2'가 언급한 개인적 경험과 '학생 3'이 제시한 객관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결합하여, (나)의 2문단에서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였다.
- ② (가)에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해결 방안을, (나)의 4문단, 5문단에서 두 가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 ③ (가)에서 '학생 2'가 간략하게 언급한 기대 효과를, (나)의 6문단에서는 '분실물 감소'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하여 서술하였다.
- ④ (가)에서 '학생 1'이 언급한 글의 예상 독자를, (나)의 첫머리에서 명시적으로 밝혀 글의 목적이 전의임을 분명히 하였다.
- ⑤ (가)에서 실현 가능성성이 낮다고 판단된 노후 사물함 전면 교체 의견을, (나)에서 예상되는 반론으로 제시한 뒤 첫 번째 개선 방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였다.

41. <보기>의 '견의문 작성 원칙'에 따라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견의문 작성 원칙]

- (ㄱ)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한다.
- (ㄴ) 제안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 (ㄷ) 방안이 실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다.
- (ㄹ) 문제 해결의 주체인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

- ① 2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수치와 함께 제시한 것은 (ㄱ)을 충족하는군.
- ② 4문단, 5문단에서 간단한 수리나 새로운 배정 방식을 제안한 것은 (ㄴ)을 충족하는군.
- ③ 6문단에서 분실물 발생률 감소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언급한 것은 (ㄷ)을 충족하는군.
- ④ 1문단과 6문단에서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ㄹ)을 충족하는군.
- ⑤ 3문단에서 사물함 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안과 업체 정보를 제시한 것은 (ㄴ)을 충족하는군.

42.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마지막 문단을 보완하고자 한다.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교감 선생님 인터뷰]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전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물함을 희망자에 한해 재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기준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 ①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사물함을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 ② 학생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사물함 배정 문제는 다음 학생회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또한, 학생들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학생회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④ 사물함 수리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학생회에서 모금 활동을 벌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⑤ 희망자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학생에게 사물함을 배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3~45] 다음은 작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생의 생각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생각

작문 과제: '숏폼 콘텐츠'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이용 태도를 제안하는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기고한다.

글의 구성 계획:

- ㉠ 숏폼 콘텐츠의 개념과 우리 주변에서의 인기를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숏폼 콘텐츠의 긍정적 특징과 부정적 특징을 균형 있게 분석해서 제시해야지.
- ㉢ 부정적 특징 중 '문해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여야겠다.
- ㉣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숏폼 콘텐츠 이용 방안을 제안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큰 인기를 얻은 크리에이터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학생의 초고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많은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어 짧은 영상을 빠르게 넘겨본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풍경의 중심에는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있다. 1분 내외의 짧은 시간 안에 핵심적인 정보나 재미를 담아 제공하는 숏폼 콘텐츠는 이제

청소년의 주된 미디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인기 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솟폼 콘텐츠의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사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숏폼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짧고 강렬하다'는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므로 핵심만 압축해서 보여준다. 이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가볍게 즐기기에 최적화된 형태이며, 최신 유행을 빠르게 습득하고 공유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솟폼 콘텐츠의 그림자 또한 같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른바 '팝콘 브레인' 현상이다. 빠르고 자극적인 영상에만 뇌가 익숙해져, 긴 호흡의 글이나 영상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자극적인 솟폼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긴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거나 영상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부분의 솟폼 콘텐츠는 복잡한 맥락을 제거하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위험도 크다.

그렇다면 우리는 솟폼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우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무분별한 시청을 자제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솟폼을 통해 접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비판적 수용태도를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솟폼 콘텐츠 시청만큼이나 긴 호흡의 독서나 영화 감상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여 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솟폼의 편리함에만 기대기보다, 그것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는 주체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43. (가)의 '학생의 생각'을 바탕으로 (나)의 '초고'를 작성했다고 할 때,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다음은 (나)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제목을 짓는다고 할 때, 추가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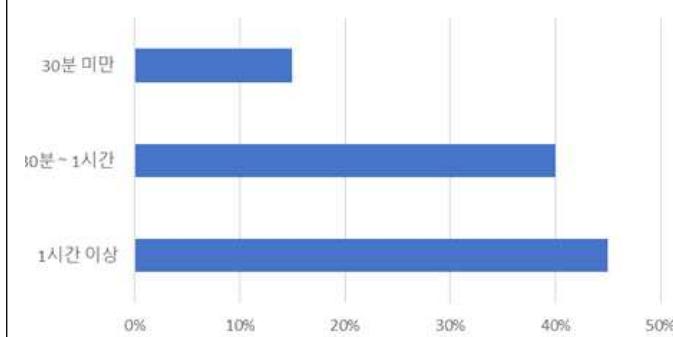
 제목을 정할 땐 글의 주제를 더 매력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어. 솟폼 콘텐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알시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 어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주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방향이면 더 좋을 것 같아.

- ① 솟폼 콘텐츠의 개념과 올바른 사용법
 ② 우리의 뇌를 망치는 솟폼 콘텐츠의 위협
 ③ 신세대의 소통법, 솟폼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
 ④ 빛과 그림자, 솟폼 콘텐츠의 두 얼굴을 마주하며
 ⑤ 솟폼 전성시대,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는가?

45.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자료 1] 교내 학생 200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숏폼 콘텐츠 일평균 이용 시간〉



[자료 2] 뇌과학 전문가 인터뷰

"짧고 강렬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해당 자극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변합니다. 이로 인해 독서나 대화 같은 일상생활의 평범한 자극에는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장기적인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1문단에서 솟폼 콘텐츠가 청소년의 주된 미디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한다.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언급한 팝콘 브레인 현상의 원인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하여 전문성을 보강한다.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4문단에서 독서나 영화 감상과 같은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근거로, 다양한 자극을 통해 뇌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④ [자료 2]를 활용하여, 3문단에서 솟폼 콘텐츠의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에, 뇌의 보상 회로가 변화하여 '팝콘 브레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를 종합하여, 다수의 학생이 장시간 솟폼 콘텐츠에 노출되는 현실이 뇌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3문단에 추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수능맞집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에서 ‘ㅎ’과 ‘ㄷ’은 용언의 어간 종성에는 나타나지만 체언의 종성으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중세 국어에는 ‘ㅎ’이나 ‘ㄷ’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꽤 여럿 존재했으며, 이러한 체언들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로 오면서 서로 조금씩 다른 변화 양상을 겪었다.

‘뒤’, ‘수컷’의 ‘수’, ‘셋’의 중세 국어 시기 어형은 각각 ‘뒤ㅎ’, ‘수ㅎ’, ‘세ㅎ’이었는데, 이렇게 ‘ㅎ’을 종성으로 가진 체언들은 일반적으로 ‘ㅎ’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뒤ㅎ’의 ‘ㅎ’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예로 볼 수 있지만, ‘수ㅎ’은 ‘ㅎ’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긴 했으나 일부 복합어에 옛 어형의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 있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수컷’은 이전 시기에 명사 ‘수ㅎ’과 ‘것’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어이다. 그러나 ‘ㅎ’이 사라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음운으로 바뀐 경우도 있는데, ‘셋’은 15세기에는 ‘세ㅎ’으로 나타났지만 17세기부터 종성이 ‘ㅅ’으로 바뀐 ‘셋’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세ㅎ’과 공존하다가 현대 국어에는 ‘셋’만 남게 되었다.

한편 현대 국어에는 ‘ㄷ’ 종성 체언도 거의 없다. ‘곡식의 알’을 뜻하는 ‘낟’이 있지만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중세 국어 시기에 종성이 ‘ㄷ’으로 끝났던 체언들은 일반적으로 근대 국어 시기에 종성이 ‘ㅅ’으로 변화했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종성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제한되어 있던 8종성법이 근대 국어에서 ‘ㄷ’이 ‘ㅅ’으로 표기되는 7종성법으로 바뀐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예 중 하나가 ‘곶(串)’이다. 이전 시기에 ‘ㄷ’ 종성 체언이었던 단어 중에는 ‘ㅎ’ 종성 체언처럼 일부 어휘에 옛 어형이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ㅅ’으로 변화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음운으로 변화한 경우도 있다. 다만 ‘ㄷ’ 종성 체언과 달리 ‘ㅎ’ 종성 체언은 중세 국어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만 ‘ㅎ’이 나타나 연철되었고, ‘ㄱ’, ‘ㄷ’, ‘ㅂ’ 앞에서는 ‘ㄱ’, ‘ㄷ’, ‘ㅂ’과 결합하여 ‘ㅋ’, ‘ㅌ’, ‘ㅍ’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자음 앞이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탈락되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 단어인 ‘수탉’은 ‘수ㅎ’의 옛 형태가 남아있는 예시로 볼 수 있다.
- ② 근대 국어 시기에는 ‘세ㅎ’과 ‘셋’이 함께 사용되었을 수 있다.
- ③ 중세 국어의 ‘곶(곧)’은 근대 국어에서 7종성법의 영향으로 ‘곶(곳)’으로 표기되었을 것이다.
- ④ 중세 국어 ‘나라ㅎ’ 뒤에 조사 ‘과’가 결합하면 [나라과]로 발음 되었을 것이다.
- ⑤ 중세 국어 ‘나라ㅎ’ 뒤에 조사 ‘도’가 결합하면 현대국어의 발음과 동일했을 것이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구분	중세 국어의 예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맏	• 모든 나이 열아홉이오 [맏이는 나이가 열아홉이고]	• 모슨 칠세오 [맏이는 칠세이고]	• 맏형, 맏며느리
	• 몬오라비 [맏오빠]	• 뱀채:債 [빚채:債]	• 맏딸, 맏아들
빚	• 내 네 빚들 가파 [내가 너의 빚을 갚아]	• 빙채:債 [빚채:債]	• 빚을 내다.
		• 빚을 다 갚흐니 [빚을 다 갚으니]	• 빚을 지다.

- ① 중세 국어의 ‘맏’이 근대 국어에서 ‘맏’으로 바뀐 것은 종성 위치에서의 표기가 ‘ㄷ’에서 ‘ㅅ’으로 변화한 것이겠군.
- ② 근대 국어의 ‘몬오라비’는 복합어 내부에서 뒤따르는 모음의 영향으로 음운이 변동되며 그 흔적을 남긴 예시이겠군.
- ③ ‘빚’이 근대 국어 시기에 ‘빌’으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 시기에 ‘빚’으로 표기되는 것은 옛 어형이 화석처럼 남은 것이군.
- ④ 근대 국어 시기에 ‘빌’과 ‘빚’이 함께 사용된 것은, ‘세ㅎ’과 ‘셋’이 특정 시기에 공존했던 것과 유사한 언어 변화의 과도기적 양상이겠군.
- ⑤ ‘맏’이 일반적인 변화를 겪었음에도 현대 국어에도 여전히 ‘맏’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낟’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겠군.

37. 다음 중 〈보기〉의 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보기〉
국어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앞말에 ①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거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이를 ‘조사’라 한다.

- ① 그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
- ② 형은 학교에 가고, 나는 집에 갔다.
- ③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 국어이다.
- ④ 나는 어제 오빠와 함께 청소를 했다.
- 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38. <보기>의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말하며, ‘안은문장’은 안긴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안긴문장은 그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 ① 토키는 앞발이 매우 짧다.
- ② 내가 어제 본 연극은 참 재미있었다.
- ③ 그는 한강 주변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 ④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떠나가 버렸다.
- ⑤ 영호는 철수에게 빨리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다

- ① ①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②의 안긴문장은 체언의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③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 ④ ④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를 꾸미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⑤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39. <보기>의 ①~⑤에 나타난 높임 표현에 대해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어머니, 할아버지께 선물 드리셨나요?
- ② 선생님, 어머니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 ③ 이모,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도 뵙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 ① ①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나타나 있다.
- ② ②과 ③은 모두 대화 상대인 청자를 높일 때 사용하는 종결 어미가 나타나 있다.
- ③ ④과 ⑤에는 모두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나타나 있다.
- ④ ④과 ⑤에는 모두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 있다.
- ⑤ ⑤에는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특수 어휘가 나타나 있다.

[40-43](가)는 온라인 방송 영상이고, (나)는 방송을 토대로 학생이 발표를 위해 만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송 제목] 스타일업TV - 옷 잘 입는 기본 공식!

진행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스타일업 TV'입니다. ①오늘은 옷장 앞에서 항상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스타일 전문가 한서연 선생님을 모시고 '옷 잘 입는 기본 공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옷을 잘 입으려면 무조건 색을 잘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②특히 무채색 옷만 돌려 입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돼 보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 밝기만 잘 맞춰도 충분히 멋진 코디가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서로 다른 옷의 밝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한 회색 상의에 베이지색 하의를 입는 식이죠. ③색은 다르지만 밝기가 비슷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스타일업TV



안정적인 조합

선명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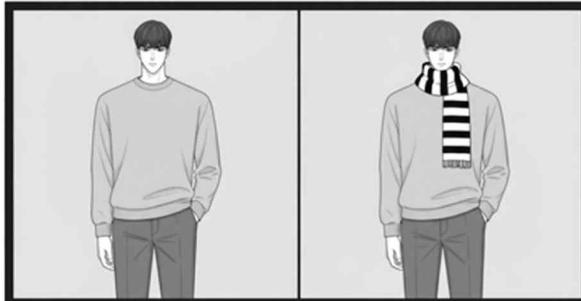
진행자: 아, 밝기를 맞춘다는 게 저런 거군요! 지금 실시간 댓글에 '베이지 러버' 님이 '그래서 베이지색 바지랑 아이보리색 니트가 잘 어울렸던 거군요!'라고 하셨네요.

전문가: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반대로 방금 화면 오른쪽처럼 흰색과 검은색처럼 밝기 차이를 크게 주면 깔끔하고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진행자: ④밝기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그런데 밝기를 비슷하게 맞췄는데도 어딘가 심심해 보일 땐 어떻게 하죠?

전문가: 그럴 땐 두 번째 공식, '소재와 패턴'을 활용할 차례입니다. 같은 무채색이라도 매끈한 면 티셔츠 위에 거친 느낌의 니트 조끼를 겹쳐 입으면 훨씬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멋진다고 느껴질 땐 이렇게 서로 다른 소재를 섞어보는 거죠.

스타일업TV



밋밋한 코디

포인트 준 코디

진행자: ④와, 목도리 하나 둘렀을 뿐인데 훨씬 생기가 도네요! (댓글을 보며) ‘체크 마니아’ 님이 ‘패턴 옷끼리 입는 건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셨어요.

전문가: 맞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땐 방금 영상처럼 옷은 단순하게 입고, 목도리나 가방, 모자처럼 작은 소품 하나만 패턴이 있는 것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쉽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정말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밝기 맞추기’와 ‘소재, 패턴 활용하기’! 저도 내일 꼭 시도해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



40. (가)의 매체 활용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가 언급하는 핵심 용어의 개념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② 전문가의 설명을 보충하는 시각 자료와 함께, 시청자의 실시간 반응을 전달하며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다.
- ③ 시청자의 질문을 담은 실시간 댓글을 활용하여 전문가와 진행자 간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④ 방송에서 다른 내용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시연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진행자가 시청자의 궁금증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전문가가 시각 자료를 활용해 답변하고 있다.

41. ⑦~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⑦: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를 구체화함으로써, 방송 내용이 특정 청자층과 관련이 깊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⑧: 보조사 ‘만’을 사용하여 무채색 옷이 지닌 단점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색의 옷을 입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⑨: ‘-지만’이라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색이 다른 상황을 전제한 후, 밝기를 맞추는 해결 방안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④ ⑩: 부사 ‘화’과 감탄형 종결 어미 ‘-네요’를 함께 사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효과가 즉각적이고 인상적이라는 진행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⑪: ‘-을 뿐인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은 행위와 그 결과를 대비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42. (가)의 방송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전문가는 명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나, (나)에서는 이를 ‘색 조합’이라는 포괄적인 제목 아래 구체적인 방법들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에서 전문가가 강조한 서로 다른 소재를 섞어 입는 방법을 (나)에서는 다양한 옷감으로 옷을 입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가)에서 전문가가 제안한 패턴이 있는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나)에서는 액세서리 활용법으로 확장하여 정보를 조직화하였다.
- ④ (가)의 내용 중 일부를 선별하고 (나)에 데일리룩 체크리스트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발표 목적에 맞게 내용을 보강하였다.
- ⑤ (가)의 동적인 영상 매체의 순차적 정보 제시 방식을 (나)에서는 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재배치하여 시각화하였다.

43. 다음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빙글 자료로 쓰기에 내용 정의가 잘 되었네요. 그런데 (가) 방송에서 전문가가 색 조합만족이나 중요하게 강조했던 ‘소재’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아쉽습니다. 색 조합이나 액세서리 활용법 외에, 서로 다른 질감의 옷을 섞어 입는 방법을 추가하여 코디를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빙글가 훨씬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 ① ‘색 조합 치트키’ 영역에 ‘설명한 대비’ 항목을 추가한다.
- ② ‘데일리룩 체크리스트’에 ‘소재의 통일성을 확인했는가?’를 추가한다.
- ③ ‘액세서리 활용법’ 영역에 ‘패턴이 있는 가방’ 예시를 추가한다.
- ④ ‘평범한 코디를 특별하게!’ 영역에 ‘소재’ 항목을 추가한다.
- ⑤ ‘톤온톤’ 조합의 예시로 ‘면 티셔츠와 니트 조끼’ 이미지를 추가한다.

[44-45](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동아리에서 제작한 포스터이고, (나)는 포스터를 수정하기 위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다들 내가 만든 환경의 날 포스터 초안 봤지? 어색한 부분이나 추가하면 좋을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민호

서연

전체적인 구성은 좋은데, 제목의 '우리 함께 텀블러!'라는 문구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져. 좀 더 눈에 띄는 표현은 없을까?

지훈

맞아. 그리고 중단에 있는 정보들이 좀 흩어져 있는 느낌이야. 일회용 컵 사용량, 분해 기간, CO2 절감 효과가 각각 중요한 정보인데, 하나의 소제목 아래에 나열만 되어 있어서 핵심이 잘 안 보여.

다은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은

미안해, 글을 잘못 썼네. 지훈이 말에 공감해. 차라리 각 정보마다 작은 아이콘과 함께 '문제 1', '문제 2'처럼 번호를 붙여서 구획을 나누는 건 어때? 그러면 정보가 더 체계적으로 보일 거야.

서연

좋은 생각이다. 제목도 '일회용 컵의 눈물, 텀블러로 닦아주세요!' 같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 더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

민호

지훈

하단에 있는 실천 방안이 너무 당연한 내용만 있는 것 같아. 교내 카페 이용 시 텀블러 할인받기는 좋은데,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활동을 추가하면 좋겠어.

다은

그리면 우리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텀블러 사용 인증샷' 이벤트를 포스터에 홍보하는 건 어때?

다은

[링크: http://...]

다은

여기 보면, 다른 학교 이벤트 사례가 나와. SNS에 텀블러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면 작은 상품을 주는 이벤트 말이야. QR코드를 넣어서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게 하면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거야.

민호

그거 정말 좋겠다! 그럼 실천 방안에 이벤트 내용을 추가하고 QR코드도 넣는 걸로 할게. 다들 좋은 의견 고마워. 내가 오늘 종으로 수정해서 다시 공유할게!

44. (나)에 나타난 온라인 대화의 양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민호'는 참여자들의 의견 대립을 중재하며, 논의된 수정 사항들을 종합하여 최종 수정안을 결정하고 있다.
- ② '서연'은 포스터의 제목을 독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지훈'은 포스터에 제시된 통계 자료가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④ '다은'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가 삭제한 후, 제목을 수정하자는 지훈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 ⑤ '다은'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5. 다음은 (나)를 바탕으로 (가)의 포스터를 수정한 것이다. (나)의 대화 내용이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서연'이 제목이 평범하여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어렵다고 지적한 의견에 따라, '일회용 컵의 눈물, 텀블러로 닦아주세요!'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 제목으로 수정하였다.

② '지훈'이 여러 정보가 하나의 소제목 아래에 나열되어 핵심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지적에 따라, '다은'이 제안한 대로 각 정보에 번호를 붙여 체계적으로 구획하였다.

③ '지훈'이 실천 방안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다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텀블러 인증샷' 이벤트 소개와 QR 코드를 삽입하였다.

④ '지훈'이 제시된 실천 방안이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안 중 '친구에게 텀블러 사용 권유하기' 문구를 삭제하고 참여 유도 효과가 더 큰 이벤트 내용을 추가하였다.

⑤ '다은'이 동아리에서 시행중인 이벤트를 바탕으로 제안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텀블러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